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가 모두 이루어주마”

성수대교 붕괴 10년,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이승영(여 당시 21세)씨는 성수대교 상판과 함께 20여m 아래로 떨어진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은 32명중의 한명이었다. 교생 실습을 위해 강북 초등학교에 버스로 출퇴근한지 닷새만의 일이었다. 사고 직후 오열 속에 딸의 유품을 챙기던 어머니 김영순(56)씨는 승영씨가 남긴 일기장에서

‘내가 일생동안 하고 싶은 14가지 소원을 발견하였다.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한 명 이상을 입양한다, 맹인(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11개월전 군인이던 남편을 과로사로 잃고 흔들리던 어머니였다. “승영아, 네 소원을 이 애미가 모두 이루어주마.”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어머니는 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생각했다. 하지만 딸 시신이 제대로 수습된 것은 장기 기증을 위한 시한인 ‘사망후 6시간’을 넘긴 뒤였다. 어머니는 대신 고려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다. 손에 쥔 보상금 2억5000만원은 전액 교회(남서울교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해 ‘승영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금을 만든다’는 딸의 소망을 이루었다. 어머니 스스로도 전도사가 돼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에 뛰어들었다.

그후 10년,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대학원생 50여명이 승영씨의 목숨과 바꾼 장학금을 받았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1동 백마마을 산곡중학교 뒷골목. 이곳에서 승영장학금을 받아 작년에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마친 최만재(47)씨는 ‘작은손길 공동체’를 만들었다. 무허가 월세 건물이지만 종이를 주워 연명하는 65세 이상 노인 11명을 모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동체다. ‘복지마을을 만든다’는 승영씨의 소원은 이렇게 장학생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는 소원도 이루어졌다. 작년 8월 승영장학회는 강원도 인제군 서흥리의 한 포병연대에 전천후 이동도서관 차량(흰색 무쓰스포츠)을 기증했다. 이 차량은 7개 부대 500여 장병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부대 조준묵(55) 군목은 “여대생이 남긴 사랑이 10년 후, 여기 강원도 오지까지 미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맹인(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소원 역시 장학회가 조만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보급을 시작하면 이루어진다.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소원은 올해 초 결혼한 동생 상업(29)씨가 “내가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10년동안 승영씨가 남긴 14가지 소원 중 실현됐거나 곧 실현될 소원은 대략 7가지. 이를 실천한 어머니 김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딸의 소원 실현을 위해 바치고 교회 근처 연립 8평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1월 7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나는 이러한 노인을 존경한다.

-정진홍 ‘잃어버린 언어들’중에서-



안 보이던 것을 이제는 더 볼 수 있게 되신 분.
욕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끝내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도 보시는 분.
늙음을 초조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추하고 딱한 모습인가 하는 것도 보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하늘 저 깊은 속도 그윽하게 바라보고,
출렁간 세월의 흐름도 한꺼번에 한눈에 꿰뚫어보시는 분.
내일과 모래도 투명하게 바라보고, 어제도 그제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속도 이제는 조용히 들여다보는 분.
그래서 몸은 늙어가되 스스로 자신의 삶이 귀하게 늘 새로워지는 분.

나는 이러한 노인을 만나면 그러한 노인이 되고 싶다.
들리지 않던 것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신 분.
큰 소리가 반드시 옳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들어 알고,
힘없는 소리가 반드시 무용한 소리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두루 살피 들으시는 분.
모든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의 발언조차 들을 수 있으신 분.
자식의 소리도 그 소리 나름으로 들을 수 있고,
젊은이의 소리도 그 나름으로 들을 수 있고, 아픈 소리도 즐거운 소리도,
미움의 소리도 사랑의 소리도, 나름 나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바위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고 꽃의 숨소리도 들리는 분.
늙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잔잔한 평화가 서서히 마음을 적셔오는 것을 온몸으로 들을 수 있는 분.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것,
그래서 자신의 삶 자체를 스스로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이러한 노인을 만나면 그렇게 늙고 싶다.

◀민음의 목상▶ 보리떡

보리떡을 든 어린아이를 찾아라.
찾다가 못찾으면
내가 보리떡을 든 아이가 되자.

◀그랜 그랜지▶ TV 드라마 “여로”

머리에 땀통하나 있던 ‘영구’와 아내 태현실, 전형적인 시어머니 박주아. 이들은 TV가 흔치않던 시절에 동네사람 모두를 TV가 있던 이장님댁으로 모이게 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색시아!” 하며 아내를 부르던 남편을 끔찍히도 위해주던 두 사람의 사랑은 지금도 아련히 가슴을 맵습니다.
이제는 먼길 돌아 떠난 ‘여로’지만 힘든 70년대를 따뜻하게 해준 기억은 꼬리별처럼 남아있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5 (시 5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213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장현중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9:1-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바울의 기적(1) "다메섹에서 새로워짐"	김성국 목사
특송 Hymn	338장	윤영전 집사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맞습니다)

◆11월의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7	장현중	경덕현	11구역
14	정덕수	권용일	1구역
21	정희자	김경숙	청년부
28	지찬영	김경천	2구역

주 일	예배와 모임
7	특별새벽기도 구역예배(12)
14	특별새벽기도 믿음의어머니다도회(16)
21	식사친교주일 (구역총강) 감사추일 은 십자가성가대(주차, 주방, 예배, 화장실봉사위원)
28	이삭줍기주일 선교회총회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심을 기뻐합니다>
*김상덕, 박제란 성도(4선교/3구역). 규연. 다른 ☎377-7938(City 한양식품) ☐(자택) APT 3 /160 Beach Rd. Parnell.City
- "자녀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11월 8일(월)-20일(토) 새벽 6:00. <예배당 문 Open> 5:20am
* "2004 봄 2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해당되는 "자녀, 부모님의 날"에 한번만 출석하는 기도회로 갖습니다. 그 외의 날은 자유롭게 참석하십시오.
*미리 오셔서 개인기도 후 예배드리면 바쁜 새벽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일과 첫주간 토요일은 기도회를 갖지않습니다
- 셋째주일(21일)은 2004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예고)
- 정기구역예배(2004년 마지막 구역예배) <일시> 12월(금)
*그동안 구역식구들과의 쌓여진 교제로 믿음의 위로와 삶의 격려가 오랫동안 이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11월셋째주일 식사친교주일은 구역별 BBQ로 구역식구들과의 한해동안 교제를 다시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 결식자급식봉사 <일시> 13일(토) 오전 10시-오후1시 .결식자봉사위원
- 세례, 유아세례, 입교(유아세례받은 교우) 대상 교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우.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우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중 대상자에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착한 시인들▶ 잃고 얻은 것
- 롱펠로우 -
잃은 것과 얻은 것
놓친 것과 이룬 것
저울질해 보니
사랑할 게 별로 없구나
내 아느니
많은 날 헛되이 보내고
화살처럼 날려보낸 좋은 뜻
못 미치거나 빛나갔음을
하지만 누가
이처럼 손익을 따지겠는가
실패가 알고 보면 승리일지 모르고
달도 기우면 다시 차오느니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에 살다보니 계산할수 없는 것도 어느새 손익을 어렵하고 있습니다. 사랑, 결혼, 인생, 보람..... 이것들을 손익계산에 넣는 세상이라면 순수라는 것은 어디에 남아있을 자리가 있을런지요. 살다가 서쪽에 쪽빛 황혼이 지는 날, 잘 살았노라고 담담하면서 자신있게 되돌아 보는 인생이라면 잃은 것 없는 인생일 겁니다.